

심각성 일깨운 2000년 표기문제 대책위 활동

이른바 2000년 연도표기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통신업계 2000년 연도표기문제 대책위원회」가 지난 97년 3월 11일 협회내 구성되었다.

대책위원장은 삼성SDS 윤재철 상무이사가 선출되어 역할을 수행중이다.

대책위원회는 4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2000년 연도표기문제의 사안의 중대성 및 유저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확산 활동과 이의 해결방안 강구, 문제 해결의 효율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업계 표준 해결 지침 개발 및 활용 촉진 등을 사업계획안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월 9일 최고 경영층을 대상으로한 「2000년 연도표기문제 제1차 세미나」를 가졌는데 경영층의 인지도 확산에 주안점이 두어진 이날 행사장에는 각계 관계자 350명이 참석하는 성황이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00년 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국 동향과 사례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 계획수립, 업체간 상호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어서 6월 24일에는 2000년 연도표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법과 예산산정방법 및 대응사례 등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도 각계에서 18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자리에서는 2000년 연도표기문제에 대한 대응현

황과 해결책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특히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이해와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인력조달 방안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강조되고, 연도표기문제를 시스템의 구조 개편, 관리체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서울지역 세미나에 이어 9월 26일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차원에서 2000년 표기문제를 주제로 부산지역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도 정부·공공·민간부문 관계자 300명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000년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예산편성과 관련, 한국전산원에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1997년 3월 24일 마련한 「2000년 연도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산정 지침(안)」에 산업·민간부문의 의견을 추가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 이를 전산원에 전달, 이를 정보통신업계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산정 지침안으로 확정토록 하였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2000년 문제인식확산의 일환으로 전산실무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국내외 2000년 문제 해결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부·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 무료 배포 및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http://sunspark.ccpak.or.kr>)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성태 사업전략과장> ●